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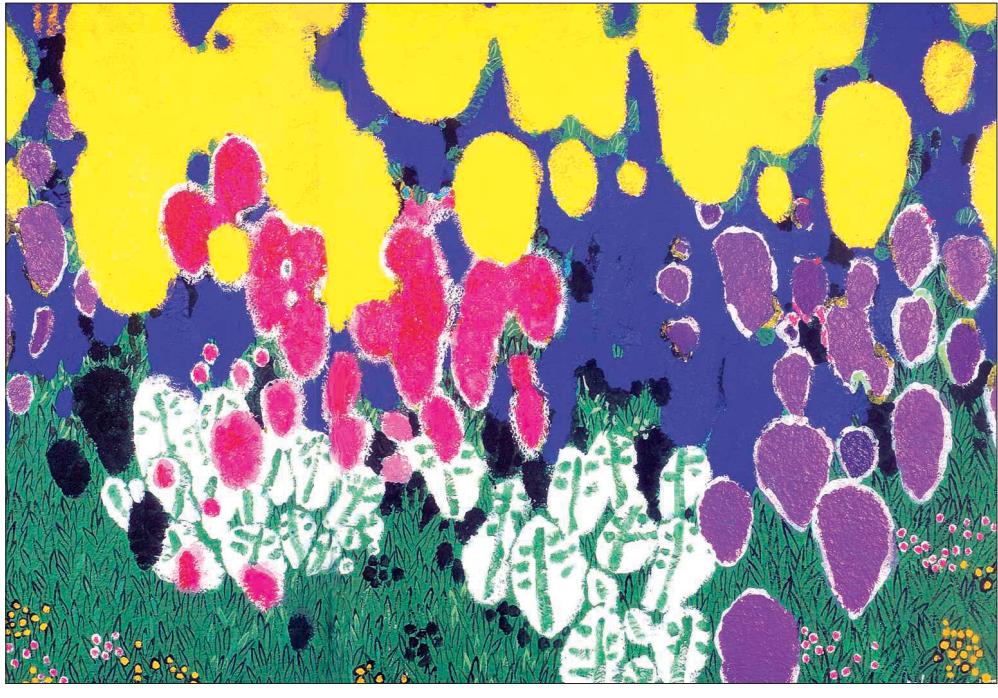
## 최영훈 '생명의 이미지' 展

7~14일 광주신세계갤러리

'색채의 미술사' 최영훈(60·조선대 미대) 교수가 4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관람객을 만난다.

지난 2003년 부인인 손연자(조각가)씨와 공동 전을 가진 후 작가는 외연 확장보다는 기나긴 자 기투영의 시간을 기졌다. 지난 2005년 학술진흥 재단의 해외파견교수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미국 뉴욕대(NYU)에서 1년 동안 연구에 매달린 것도 그 연장 선상이다.

그가 사랑하는 '생명의 이미지'를 주제로 한 전 시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7~14일까지 열린다. 중견 서양화가로서 입지를 구축해온 최씨는 기나긴 '공부'의 결과를 작품에 켜켜이 새기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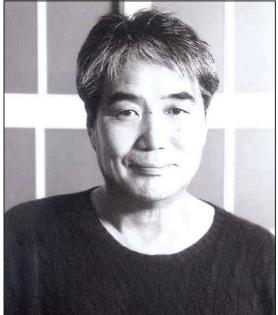
'봄의 연기'

## 화폭 가득 꽃의 향연

**“**  
봄의 생명력 희망의 메시지

‘행복한’ 색채학 현란한 발산

**”**



&lt;최영훈 교수&gt;

우는 추상적인 작  
업세계를 선보이  
는 등 자기변신을  
암시하고 있다.

미술평론가 윤

진섭씨는 ‘최씨가

그린 숲이나 꽃은

색면 추상에 가깝

다”며 “나뭇잎이

나 꽃잎, 암술과 수

술을 나타내는 유례

한 형태들은 화려한 색채와 결합됨으로써 색체

와 형태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”고 설명한다.

‘봄날’은 그가 왜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가

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. 화려한 색의 향

연이 펼쳐지는 캔버스에서는 봄의 생명력과 희

망의 메시지가 넘쳐난다.  
대작 ‘5월의 꿈’(194x130cm) ‘생명의 기쁨’  
(194x130cm)은 생동하는 색채의 이미지와 노랑,  
빨강, 녹색 등이 산뜻하고 밝랄한 봄을 형상화하  
고 있다.

최영훈 교수는 “해마다 꽃씨를 뿌리고 만개한  
꽃을 보면 살이있을 자체의 경이로움과 아름  
다움을 느껴온 삶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  
다”고 말했다.

조선대 미술대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개인전  
15회, 삼봉도봉노 한국작가 특별전, 모스크바 국  
립미술관 한국현대작가전 등 다수의 국내외 전  
에 참가했다. ‘색채원론’, ‘색채학개론’ 등을 펴냈  
으며 광주시립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, 광주 시립  
미술관 등을 지냈다. 062-360-1630.

/윤영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작가는 꽃을 색으로 표현하던 기존 화법에  
서 벗어나 색으로 꽃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 
새로운 조형세계를 선보이고 있다. ‘여명’·‘봄  
의 찬가’·‘봄날의 꿈A’ 등 작품 속의 꽃들은 형  
체가 희미하지만 관람객들의 가슴에 또렷히  
맺힌다.

한 발 더 나아가 최씨는 ‘대소리 바람소리A,B,  
C,D’라는 연작에서 색과 꽃잎만으로 화폭을 제

## 디자인비엔날레 해외홍보 시동

## 8일 이탈리아 밀라노 설명회

오는 10월 개막하는 2007 제2회 광  
주디자인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  
르기 위한 국내외 홍보가 본궤도에  
올랐다.

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일 부산 베  
스코(BEXCO)에서 열리는 2007대한  
민국 국제박람회장에 광주시와 통합  
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국내외 참관객  
들에게 홍보물과 리플렛을 나눠주는  
등 디자인 비엔날레를 본격 홍보했  
다.

비엔날레는 오는 8일 세계적인 디  
자인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

지 언론과 디자인계, 학계 인사 등  
을 상대로 해외 홍보설명회를 갖는다.

해외 홍보설명회에는 ‘마리 끌레  
르 메종 이탈리아’와 ‘도모스’, ‘오  
타고노’ 등 세계적 디자인 잡지 기  
자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  
정이다.

이와 함께 (재)광주비엔날레는  
오는 7일부터 외부인사 4명으로  
‘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  
유치 TF팀’을 구성해 전국 순회홍  
보와 관람객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  
이다.

/윤영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## 이양수·김수인 모녀 음식연구가 ‘손맛으로’ 출간

광주·전남에서 활  
동 중인 모녀 음식 연  
구가 ‘손맛으로’ 이  
어지는 전통음식’(효  
일 페념)을 출간했다.

주인공은 음식 메뉴  
개발 및 푸드 코디네  
이션 교육 기업인 향원당을 운영  
하는 어머니 이양수(66·씨)와 전  
남도립 남도대학에서 호텔조리  
제빵학부 교수로 활동 중인 딸 김  
수인(34·씨).

이들은 떡·한과·음료류 등을  
현대적 감각에 맞게 응용한 전통

음식 80여점을 레시피,  
컬러 사진과 함께 책 속  
에 담았다. 책에는 또 한  
국 음식문화 전반에 대  
한 소개와 상차림, 통과  
의례, 절식(節食)·식식  
(時食) 풍습 등이 정리

돼 있다.

저자들은 “작침상이나 면접때만  
등장하는 우리의 대표 먹거리가 서  
양 음식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으면  
좋겠다”며 “전통 음식의 대중화에  
힘이 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/정상필기자 camus@kwangju.co.kr

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.megabox.co.kr

## 데가박스

구. 런던 약국사거리 ♥ 예매 1544-0600

1관 스파이더맨 3 (12세/디지털) 최고급관

2관 스파이더맨 3 (12세/디지털)

3관 극락도 살인사건 (15세)

4관 라이트닝 10의 재생 (15세)/동갑내기 과외하기: 레슨 2 (12세)

5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6관 날아라 허동구 (전체)/더블타겟 (18세)

7관 쉐즈 더 맨 (12세)

8관 쉐즈 더 맨 (12세)

9관 아들 (전체)

5월 1일부터 매개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.  
\*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 
(단, 영화 관람고객이 한정)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
★ 무료팝콘 뷔페-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

금, 토(2일간) 십야상영

—주차장이 편한 극장—

## 엔터 시네마

총장로 5가 ☎ 228-2700

1관 눈부신 날에 (15세)

2관 고스트 라이더 (15세)

3관 아들 (전체)

4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(12세)

5관 극락도 살인사건 (15세)

6관 날아라 허동구 (전체)

7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8관 아들 (전체)

9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10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\*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<3시간 무료>  
\* 매주 금·토 십야 2,000원 할인 \*

횡성시립 영화시청장 \* 예매: www.joycbc.com / 1588-7941

##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

상무점 (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) 하남점 (무역관편)

1관 극락도 살인사건 (15세)

2관 아리마 전용관) 살롯의 거미줄 (전체/디비)

3관 더블 타겟 (18세)

4관 날아라 허동구 (전체)

5관 날아라 허동구 (M7D 디비전) /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 2 (12세)

6관 아들 (전체)

7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8관 아들 (전체)

9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10관 스파이더맨 3 (12세)

\* 호남 최대 주차장 ◉ 매일심사 상영합니다

콜롬버스 하남점 (10관) 절찬리 상영중

상영장연결 방법  
[1번~2번] → 0번

## 제52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·입상자

## 피아노 초등부 3·4학년

심사위원  
조성경 교수 (남부대)  
조선미 교수 (광주여자대)  
김영신 교수 (전주대)

2 박서정(문정4)  
4 손주리(진월4)

7 정희호(광주문화3)

9 박수진(각화3)

11 윤재은(제4학)

13 조현화(신암4)

14 박지현(영강4)

21 최정우(서일4)

23 이탄영(진월4)

24 조호현(봉선3)

25 임다은(유안4)

26 양나연(유진4)

28 장원(일동4)

30 윤혜영(신기4)

31 박용(서광4)

32 이지원(안심4)

40 김한솔(매곡4)

43 이다혜(광주송원4)

44 박시연(월계4)

50 이재흔(정암3)

52 정연지(화순면3)

57 이세아(금부4)

58 봉혁영(본촌3)

59 이재학(금부4)

61 서민정(금부4)

63 김유섭(화순면3)

65 최하은(화정남3)

68 최다영(연제4)

72 신현진(수문4)

74 최승찬(일신4)

75 최유진(일곡4)

79 김민성(염주4)

85 김수지(문정4)

88 김산율(용두4)

91 정운아(문산3)

93 나은지(운남4)

96 채준(화개4)

98 박상언(율곡3)

100 이세영(광주불로3)

101 장희원(본촌3)

103 이하람(회계4)

106 고우정(수문3)

110 김채연(미산4)